

# “신안군을 맛의 예술섬으로”

### 1004섬 맛의 예술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보고회 “신안만큼 계절별·월별 식재료 풍부한 곳 없어”



신안군은 지난 11월 26일 신안군 보건소 3층 1004회의실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 부군수, 실과장,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4섬 맛의 예술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강성국 교수가 주도하고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 신세계한식연구소 박종숙 소장, 노블젠 김태현 대표가 연구원 참여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까지 10개월간의 연구 과정을 돌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맛의 예술섬' 구축을 통한 세계적인 미식도시 실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신안군의 생태미식도시 기본 방향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전제 신안군의 추구 방향 △지산지소 실천 및 식문화 전문 인재 육성 △신안의 로컬푸드 활용방안 △미식 도시 신안의 홍보와 이벤트

등을 주제로 보고회를 가졌다.

강형기 교수는 “신안군만큼 계절별, 월별 식재료가 풍부한 곳이 없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사계절 요리를 선보이기를 바라며, 식문화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과 신안군민들의 미식수준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한식연구소 박종숙 소장은 “신안군 향우들의 추억의 음식을 조사하여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또 이를 통해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노블젠 김태현 대표는 “저탄소 농업과 맑은바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청정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린 뉴딜을 선도해나가자.”라고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사계절 농·수산물 먹거리가 풍부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신안의 재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용역이 최종보고로 끝나지 않고 맛의 예술섬으로 발전을 위한 지속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맛의 예술섬이 지향하는 사업의 취지와 시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쌓아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목포시, 겨울철 대비 전통시장 대형화재 안전점검 실시

목포시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월 25, 26일 이틀간 동부시장을 비롯한 7개소전통시장에 대해 대형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건조해지는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험안내 및 안전표지 정비·관리

상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설비(소화기 등) 비치 및 상태, 전기설비 및 화기 취급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지역 상인들에게 화재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전기장판 등 난방시설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등을 알려 줌으로써 대형화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광군,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총력 추진

영광군은 겨울철 폭설대비 차량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을 도로제설 추진 기간으로 정

하고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영광경찰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제설덤프, 트랙터 제설

기 등 총 66대의 제설장비를 사전 정비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영화갈슘 1400t, 소금 230t 등 제설자재를 군 제설창고와 읍면에서 확보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에 모래주머니 5천 개를 급경사 구간 등에 비치하는 등 제설 대책 사전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

### 일로읍 회산백련지에 조성...청단풍 65그루 심어



무안군은 인구정책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출산둥이 탄생의 숲을 조성하였다.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젊은 세대의 자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조성된 출산둥이 탄생의 숲은

일로읍 회산백련지에 조성되었으며, 올해는 우선 청단풍 65그루를 심어 아이들의 탄생을 기념하였다.

2020년 10월 말 무안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56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군에서는 당초 참여를 희망한 출산둥이 가족들이 직접 탄생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군에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오동지구 임주에 따라 젊은층 유입으로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청년정책,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 등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입세대 환영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2020년산 정부보급종 벼종자 신청 접수

### 15일까지 신청 홍보...공급 내년 1월부터 3월 하순까지

영암군에서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배할 2020년산 정부보급종 벼 11품종을 1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벼 보급종 신청방법은 마을별로 이장이 신청량 취합하여 신청서를 거주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고 군에서 농가별 보급종 공급량을

확정통보하며, 공급은 2021년 1월~3월 하순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한다.

신청가능한 벼 품종은 11품종 252톤이며(일미 100.7톤, 영호진미 57.3톤, 신동진 48.3톤, 새청무 18.9톤, 새일미 8톤, 새누리 5톤, 미품 0.2톤, 영광 1.6톤, 조명1호 1.4톤, 동진찰 3.9톤, 백옥찰 6.7톤)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

급되며 보급종 공급가격은 내년도 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도 영농계획을 위해 종자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금년 보급종 부터는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므로 온탕소독 및 약제소독을 통해 카다리병 등 종자 감염 병해 예방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 7437농가 대상으로 197억 지급...지난해 비해 89억 증가

함평군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7,437농가에 1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올해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소농직불금 2,384농가에 28억 원, 면적직불금 5,053농가에 169억 원을 지난해보다 89억이 증가한 197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쌀·밭 구분없이 경작면적 0.5ha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량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을 일괄지급

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특히, 함평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일정 비율 감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잦은 강우 및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지급 농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